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293호 (2012년 2월 첫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Tour.go.kr

[국토해양부] 한국형 크루즈선, 동남아 크루즈여행 시대 열다	3
[국토해양부] 우리고장 지명(地名)에 얹힌 유래를 한눈에 !	4
[농림수산식품부] 막걸리누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	6
[문화체육관광부] 패션 한류의 주역 컨셉코리아의 5번째 시즌 컨셉코리아 FW12 개최	8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을 대표하는 대학생 다 모여라	11
[보건복지부] 글로벌헬스케어 핵심인재, 당신도 될 수 있다.	12
[외교통상부] 이라크·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14
[행정안전부]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백두대간 이화령구간 잇는다.	15
[환경부] 봄철 국립공원 방문할 때 통제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17
[환경부] 2일 제16회 '세계 습지의 날', 국민과 함께 의미 나눈다	18
[서울특별시] 서울시, 관악산·매봉산·안산에 무장애숲길 조성	20
[서울특별시] 광화문역, 환경 명품 역사로 거듭난다	23
[대구광역시]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본격화!	24
[대구광역시] 대구시, 모텔을 중저가 『일반호텔』로 키운다!	25
[부산광역시] '갈맷길 7백리' 걸으면서 부산을 느껴 보세요!	26
[부산광역시] 부산, 국제크루즈 중심지로 정착	28
[부산광역시]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 앞 어업권 정비	29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출범기념 3개호텔 통합 프로모션 실시	30
[대전광역시] 대전시, 의료관광 활성화 '본궤도' 오른다	31
[광주광역시] 광주시, 여수엑스포 활용 해외관광객 유치 총력	32
[광주광역시] 광주시, 숙박업소, 맛집안내 한 권에,,,	33

[광주광역시] 광주시, 무등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잔결음	34
[강원도] 강원도,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7만명 급증	35
[강원도] 강원도,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행정지원본부 구성·운영	37
[강원도] 「녹색쌈지공원」 조성 등 녹색 도시숲 본격 추진	38
[경상남도] 부곡온천 、 통영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최종 선정	39
[경상남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300만 명 경남유치 준비완료	40
[충청북도] 청남대, 겨울철 전국 최고 관광명소로 '발돋움'	43
[충청북도] 관광객 모두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 가장 인상적	44
[충청남도] 작년 바다낚시객 크게 늘었다	46
[전라북도] 수학여행단 인솔은 우리에게 맡겨요	47
[전라남도] 전남 뱃길 관광객 200만시대 활짝	48
[전라남도] 경관 뛰어난 바닷가, 국민 여가 휴향지로	49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일본 시즈오카현 '한류스타' 활용 관광객 유치 마케팅 실시	50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호주 배낭여행객들, 여행비용 부담으로 시드니에만 머물러	51

[국토해양부] 한국형 크루즈선, 동남아 크루즈여행 시대 열다

- 26천톤급 '클럽하모니'호, 부산을 모항으로 일본·중국 등 운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 최초 정통 크루즈선사인 하모니크루즈(회장 한희승)사가 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클럽하모니'호 취항식을 갖고, 2월 16일부터 본격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식에는 장광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을동, 박상은, 윤상일 한선교 국회의원과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부산지역 주요 단체장 및 해운·관광업계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클럽하모니'호는 길이 176m, 폭 26m에 26천톤(총톤수)으로 축구장 2개 정도를 이어 붙인 길이에 9층 높이 규모로 383개의 객실에 승객(1,000명)과 승무원을 포함해 총 1,4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더욱이 야외 수영장, 대형극장, 고급 레스토랑, 피트니스 클럽, 스파, 키즈클럽 등을 갖춘 유럽 정통 스타일의 크루즈선이다.

이 크루즈선은 오는 2월 16일 부산을 출발해 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에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한·일 크루즈(3박4일) 상품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한국과 일본 중심으로 4박 5일 등의 단기 크루즈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7월 이후부터는 향후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큰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등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출시하여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클럽하모니'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의 전문 크루즈선인 만큼 한국인 승무원이 다수 승선해 외국의 크루즈선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내 언어 소통의 문제를 없애고, 한국 요리를 기본으로 한국인과 동양인의 입맛에 맞는 최고급 F&B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인의 휴가 패턴에 맞는 일정과 프로그램으로 외국 크루즈 선사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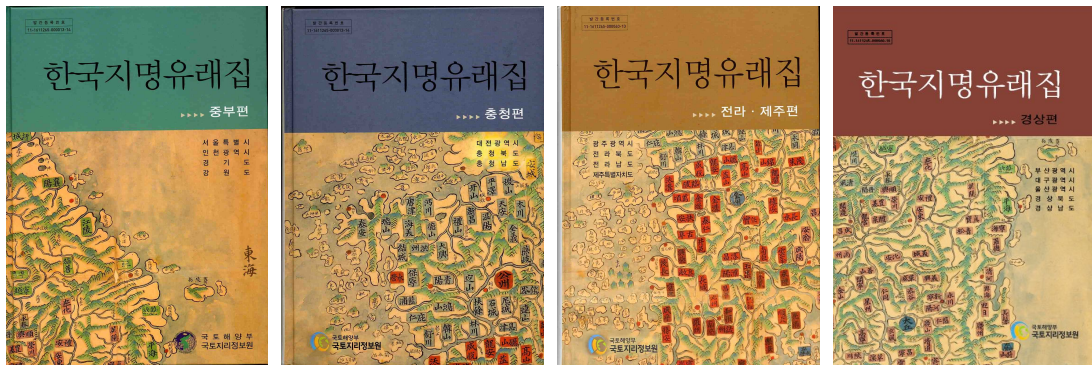
하모니크루즈사는 우리나라의 벌크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이 100% 출자한 국내 최초의 크루즈 전문운영선사다. 모회사인 폴라리스쉬핑은 우리나라 최대의 제철회사인 포스코, 한전 등의 원자재를 장기운송계약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총 자산 6,000억원, 연 매출 4,000억원대 규모의 중견 해운회사이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로부터 순항여객운송(크루즈)사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유럽 최대 크루즈선사인 코스타크루즈로부터 '클럽하모니'호를 인수했다.

(국토해양부, 담당: 해운정책과 이외경 주무관 (02-2110-8549) | 등록일 : 2012.01.31)

[국토해양부] 우리고장 지명(地名)에 얹힌 유래를 한눈에 !

- 지명유래와 변천과정을 수록한 남한지역 지명유래집 완간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성안)은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일원의 지명 유래를 수록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을 간행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2008년부터 『한국지명유래집』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 중부편('08년) ▲ 충청편('09년) ▲ 전라·제주편('10년) ▲ 경상편('11년)

- 이번에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이 발간됨으로써 남한지역의 지명유래집 발간을 완료하였다.
- 이번에 발간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은 경상도 지역 2,900여개의 지명에 대하여 지명의 별칭, 유래, 설화, 예전 지명 등을 소개하였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도(古地圖)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 경상도편에 수록된 지명을 파악한 결과 지명의 어두(語頭)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글자는 '대(大)'자가 가장 많았고(90개), 다음이 '용(龍)'자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59개). '용'자는 특히 용두산(龍頭山) 등의 산 지명에서 많이 사용되고, 낙동강 유역에 용당(龍堂) 지명이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다.
- 용(龍)은 동양에서 신성한 힘을 지닌 상서로운 존재로서, 산의 맥을 지칭하거나 비를 부르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 유역의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에서는 매년 용신제를 지내고 있다.
-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에 소개된 몇 가지 재미난 유래 및 지명을 소개하자면,
 - 부산에 소재한 "오륙도"는 부산만으로 향해 나란히 위치한 바위섬들을 지칭하는 지명으로써 등대섬 등 여섯 개로 이뤄졌으나, 썰물 때 방패섬과 솔섬이 연결되어 다섯 개 섬으로 보이는 것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여지도서』

에는 "동쪽에서 보면 6봉(峰)이고 서쪽에서 보면 5봉이기 때문에 오륙도라고 부른다"라는 기록도 있다.

- 경상남도 하동군의 "날라리봉"은 정상에 바위가 낮의 날처럼 생겼다고 하여 낮날봉인데 음이 변형되어 날라리봉, 날리리봉(날리리봉)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
- 진주시에 있는 "디비리암"은 '매우' 또는 '크다'는 경상도 지역말 '디'와 '벼랑'을 의미하는 '비리'가 합쳐져 '큰 벼랑'을 의미한다는 유래가 있다.
- 한국지명유래집(경상편)은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학회 및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포털(www.land.go.kr)에서도 관련 책자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 지명유래집 발간을 통하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의 역사적 전통성을 보존하고, 조상의 얼이 스며들어 있는 지명을 바르게 사용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담당: 국토지리정보원 장현진 주무관 (02-2110-2693) | 등록일 : 2012.01.31)

[농림수산식품부] 막걸리누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

- 작년 4/4분기 중 2011년산 햅쌀막걸리 300만병 팔려

〈 주 요 내 용 〉

- ◇ 전국의 막걸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협력하여 작년 '막걸리의 날'인 10.27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판촉전 결과 2011년산 햅쌀막걸리 판매량이 269만병으로 집계, 전년대비 31% 증가함
 - * 판촉전 미참가 및 자체출시 막걸리까지 감안할 경우, 약 300만병 판매 추정
- 이번 햅쌀막걸리 동시 판촉전에는 전국 51개 양조장의 75개 제품이 출시되어 백화점, 대형마트, SSM 및 편의점 등 전국 2만여 유통매장을 통해 햅쌀막걸리 표시 태그를 부착하고 동시에 판매
- 햅쌀막걸리 판매가 증가한 것은 고품질 막걸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호응으로 햅쌀막걸리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정착한 것을 의미
- ◇ 금년에도 햅쌀막걸리 활성화를 위해 '막걸리의 날'인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햅쌀막걸리 일제출시 행사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일본, 중국 등에도 '막걸리누보'일을 지정하여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작년 막걸리의 날인 10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2011년 햅쌀막걸리 전국 동시 판촉전에서 총 2,689천병의 햅쌀막걸리가 출시·판매되어 전년도 판매량(2,045천병)에 비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햅쌀막걸리 판촉전은 햅쌀 수확시기, 술 제조 소요기간 및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을 기점으로 막걸리 제조업체, 중간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의 유통매장을 통해 당해년산 햅쌀막걸리를 일제히 출시·판매를 진행한 것이다.
 - 이번 햅쌀막걸리 동시 판촉전은 전국 51개 양조장의 75개 제품이 참여하여 40여개 백화점, 300여개 대형마트, 3,000여개 SSM 및 17,000여개 편의점 등 전국 2만여 유통매장에서 정부에서 제작·보급한 통일된 햅쌀막걸리 표시 태그를 부착하고 진행되었다.
 - 이번에 조사된 판매량은 사전에 행사참여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보급한 햅쌀막걸리 표시태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시한 햅쌀막걸리만을 집계한 것으로, 판촉전 미참가 업체나 자체 출시한 막걸리 등을 감안할 경우, 전체 햅쌀막걸리 판매량은 약 3,000천병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햅쌀막걸리 판촉전은 프랑스의 '보졸레누보' 와인의 일제출시 마케팅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막걸리에 접목한 것으로, 당해년도 햅쌀로 제조한 고품질 막걸리의 유통을 차별화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 프랑스 '보졸레누보'는 사전출시를 금지하고 11월 세 번째 목요일에 햅포도 와

인을 일제 출시하는 마케팅 기법을 통해 와인의 세계화에 기여

- 보졸레누보는 품질보다는 신선한 와인을 처음 맛본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햅쌀막걸리는 그런 의미 외에 묵은쌀로 빚은 막걸리에 비해 양조시 숙취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퓨젤오일이 적게 생성되고 특유의 고소한 맛을 유지하는 등 햅쌀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품질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햅쌀막걸리가 새로운 막걸리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햅쌀막걸리 차별화를 통한 막걸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막걸리의 날'인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햅쌀막걸리 일제 출시행사를 확대 실시하고, 향후 일본과 중국 등에도 '막걸리누보'일을 지정하여 우리술 막걸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막걸리 수출은 2009년 628만불, 2010년 1,910만불에 이어 2011년에는 5,278만불로 전년대비 3배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내 막걸리 업체들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현지인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 및 현지 마케팅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막걸리 수출목표를 8,000만불로 정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막걸리 품질개선 등 R&D 결과 보급, 해외 마케팅 활동 등 막걸리 수출확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식품산업진흥과 박성기 사무관 (02-500-1952) | 등록일 : 2012.01.30)

[문화체육관광부] 패션 한류의 주역 컨셉코리아의 5번째 시즌 컨셉코리아 FW12, 2월 10일 개최

- 2. 10.(금), 링컨센터 '더 스테이지'에서 뉴욕패션위크 공식 행사로 개최

» 도호, 손정완, 스티브J&요니P, 이상봉, 이주영 등 한국 대표 디자이너 뉴욕 무대 조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구광역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함께 오는 2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Concept Korea FW12, fashion Collective(이하 컨셉코리아 FW12)'를 개최한다.

- 한국 대표 디자이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뉴욕패션위크¹⁾ 공식 행사의 하나로 진행되며, 도호, 손정완, 스티브J&요니P, 이상봉, 이주영 등 총 5팀의 한국 대표 디자이너들이 참여한다.

» 수묵화 콘셉트의 패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10일부터 상시 세일즈 쇼룸 운영 예정

□ 이번 컨셉코리아 FW12 행사는 ▲프레젠테이션 쇼, ▲현지 세일즈 쇼룸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 오는 2월 10일(금) 11시 뉴욕 링컨센터 더 스테이지(The Stage)에서 개최되는 프레젠테이션 쇼에서는 한국적 정서와 패션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패션에서도 한류 열풍을 이어갈 계획이다.

- '수묵화(Ink Wash painting)'를 메인 테마로 하는 이번 쇼에서는 수묵화 일러스트레이션, 역동적 영상, K-Pop, 국악 크로스오버 등을 통해 기존 패션 프레젠테이션 쇼와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멋과 흥을 전 세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 또한 디자이너의 미국 현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현지 쇼룸 입점 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 우선 각 디자이너의 콘셉트에 맞는 미국 유명 디자이너 쇼룸에 개별 입점이 지원된다, 기존에 동일한 쇼룸에서 5팀의 디자이너 의상을 모두 함께 선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시즌에서는 참여 디자이너의 특성에 맞추어 각각의 쇼룸에서 F/W 시즌 동안 1:1 비즈매칭 형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현지 쇼룸의 개별 입점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컨셉코리아와 우리 디자이너에 대한 현지의 인지도와 호감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1) 뉴욕패션위크 : 2012. 2. 9.(목)~2. 16.(목), 링컨센터에서 개최. 세계 4대 컬렉션 중 가장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장. 혁신적인 트렌드보다는 상품으로서의 패션을 제안하는 대중적 컬렉션

- 쇼룸 운영에 대한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과거 쇼룸 지원은 패션위크 기간 내로 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이번 시즌부터는 2월부터 6월까지로 그 지원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이를 통해 현지 유통기반과 인지도가 강화되어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자이너별 입점 쇼룸 현황

▲Cres Cala Fashion development(도호), ▲ADK showroom(손정완), ▲EasternBlock(스티브J&요니P), ▲Estarise(이상봉), ▲Idiel Showroom(이주영)

» 지난해 52만 불이 넘는 수출 상담 실적으로 뉴욕 패션 한류의 성공적 원년 일귀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컨셉코리아 FW12 일정과 함께 지난 2011년에 추진된 수출 상담 실적도 발표했다. 컨셉코리아는 해외 언론과 패션계 인사들의 높아진 관심을 수출 상담으로 이끌어 쇼룸 지원이 이루어진 '11년 첫 해에 52만 불이 넘는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어, 명실상부한 뉴욕 패션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0년 2월 시작되어 올해 5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컨셉코리아는 지난해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에 대한 선택과 집중, 현지 정착을 위한 쇼룸 입점 지원 등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비즈매칭에는 하비 니콜스(Harvey Nicoles),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삭스피프스애비뉴(Saksfifth avenue) 등의 유명 백화점과, 인터믹스(Intermix), 오픈링 세리머니(Opening Ceremony), 아트리움(Atrium)등의 편집숍이 참여했다. 그 결과 컨셉코리아 FW11에서는 25만 불, 컨셉코리아 SS12에서는 28만 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또한 컨셉코리아는 참여 디자이너 대부분이 뉴욕 현지로 진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특히 그동안 디자이너 진출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미국 시장에서 시즌 5 참여 디자이너 팀 모두가 현지 입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단순 완제품 수출에서 한 발 나아가 현지 유통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컨셉코리아 FW11에 참여한 최범석 디자이너도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등 디자이너들이 각기 현지 유명숍과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참여 디자이너의 컬렉션이 현지에서 보다 폭넓게 유통될 전망이다.

컨셉코리아를 주관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동천 부원장은 "지난해 2011년 컨셉코리아의 성과는 컨셉코리아 디자이너들의 인지도가 반영된 것은 물론 뉴욕컬렉션에 단순 참여가 아닌 디자이너들의 비즈니스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 결과물이다. 4회째였던 컨셉코리아 SS12는 지난 회 대비 높은 수출 상담계약 실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밝혔다.

-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컨셉코리아에 참여하는 디자이너 이상봉은 "비즈니스 지원이 원활했던 지난 시즌을 통해 뉴욕 현지 유통 매장 진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뉴욕시장 진출을 좀 더 가시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번에 선보일 수목화 콘셉트는 한국 패션의 독창성을 세계에 전달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이번 시즌을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뉴욕에서 진행되는 '컨셉코리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사이트(www.conceptkorea.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컨셉코리아 트위터(twitter.com/#!/conceptkorea_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conceptkorea)에서도 '컨셉코리아 FW12'에 대한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대중문화산업팀 하현진 사무관 (02-3704-9384) | 등록일 : 2012.02.02)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을 대표하는 대학생 다 모여라

- 제7기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 선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부의 정책 현장 이야기를 들려줄 제7기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 열정과 감각을 가진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

올해 선발 예정인 대학생 기자는 총 15명으로(글 10명, 동영상 5명),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문화부 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문화, 체육, 관광 등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2012년 기준으로 재·휴학 중인 전국의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는 문화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와 문화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http://culturenotistory.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심사 결과는 2월 15일 등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

대학생 기자단에게는 기사 작성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 취재 명함, 해외 취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활동 기준을 준수한 이들에게는 '활동증명서'를 발급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2011년에 활동한 제6기 대학생 기자단은 안철수 교수, 개그맨 최효종, 쇼트트랙 성시백 선수, 씨름선수 이만기, 서경덕 홍보전문가 등 문화·체육·관광을 아우르는 유명 인사들과의 인터뷰 기사로 포털사이트인 다음 뷰(Daum view), 문화부 SNS 등에서 누리꾼들에게 화제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홍보담당관실 이유진 (02-3704-9044) | 등록일 : 2012.01.30)

[보건복지부] 글로벌헬스케어 핵심인재, 당신도 될 수 있다.

- 글로벌헬스케어분야, 신성장동력 유망직종으로 부각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09년부터 글로벌헬스케어분야 핵심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 금년에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3개과정 160여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 의료통역사(60명), 외국의료인진료코디네이터(20명),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80명)

□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은 의료 분야, 의학용어 분야, 통역 분야 및 병원 현장실습을 포함한 실무중심의 강의와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매주 토요일 8시간씩 총 200시간/6개월 동안 서울 교육장(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대상은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의료인,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해당 외국어 능통자 등이며, 7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몽골어, 베트남어) 총 6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 개인부담금(136만원)이외의 교육비는 국비로 지원(670만원)되고, 교육생은 과정 이수 중·후 1년 이내에 30시간의 의무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 외국의료인진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의료분야, 병원 의사소통 분야 및 현장실습을 포함한 실무중심의 강의와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매주 토요일 8시간씩 총 100시간/3개월 과정으로 서울 교육장(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대상은 국내 거주 외국(중국, 몽골, 베트남)의료관련 인력이며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 교육비는 모두 국비로 지원되고, 교육생은 과정 이수 중·후 1년 이내에 50시간의 의무봉사를 수행해야 한다.

□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과정으로 서울/오송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실무중심의 이론교육과 Action Learning을 통한 의료서비스 상품화 기획, 병원 마케팅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 서울 교육과정은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오송 교육과정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매주 토요일 8시간씩 총 200시간/6개월 과정으로, 서울과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오송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본원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교육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해외마케팅 담당자나 해당업무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서울 50명, 오송 30명 등 총 8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 해외 연수비(140만원 내외)를 제외한 교육비는 모두 국비로 지원된다.
- 지원희망자는 참가신청서 및 자기 소개서, 서약서 등을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모집 계획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및 의료통역사 홈페이지(www.miko.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 현재까지 3년 간 의료통역사 165명, 외국의료인진료코디네이터 51명,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142명이 양성되었으며,
- 이 과정을 수료한 기재직자들은 소속 병의원 국제부 등에서 해외환자유치업무를 담당하며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 기재직자 : 의료통역사 139명, 진료코디네이터 40명, 병원국제마케터 137명
- 의료통역사 23명, 진료코디네이터 7명, 병원국제마케터 4명이 의료기관 등에 신규로 취업하여 해외환자 유치 첨병으로 활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 보건산업정책과 정은영 (02-2023-7583) | 등록일 : 2012.02.01)

[외교통상부] 이라크·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1. 외교통상부는 금 1.30(월) 제1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다.

※ 이라크는 2012.2.6, 시리아는 2012.2.29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

※ 이라크는 2007.8.7, 시리아는 2011.8.30부터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

2. 금번 회의 결과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을 각각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라크에서는 계속해서 폭탄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미군 철수 이후 치안공백 및 정국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시위 강경진압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이라크의 경우 2012.2.7 - 2012.8.6, 시리아의 경우 2012.3.1 - 2012.8.31까지 각각 연장

※ 여행금지국 지정국가(총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 다만,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3.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외교통상부, 담당: 계외동포영사국 이영호 심의관 (02-2100-7565) | 등록일 : 2012.01.30)

[행정안전부]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백두대간 이화령구간 잇는다.

- 백두대간 이화령구간 복원사업 2월 착수, 10월 준공

□ 일제강점기에 도로 개설로 끊어진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한 이화령 구간을 잇는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단절된 백두대간 이화령구간 복원사업"을 금년 2월에 착수하여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량 : 연장 60m, 폭 12m, 사업비 : 43.6억원(산림청 20, 지방비 2, 행안부 21.6)

□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총연장 1,400km에 이르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민족의 숨결이 숨 쉬고 있는 가장 큰 대표 산줄기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 및 인문사회학적 환경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 대간을 중심으로 문화적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서식하는 수많은 동물의 이동통로와 식물의 연속성을 갖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동안 백두대간은 일제강점기와 산업성장에 따른 산림훼손으로 단절 구간이 50개소에 이르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에서는 복원이 시급한 구간 13개소에 대해 년차별로 총 557억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을 이을 예정이다.

※ 13개소 중 일제강점기 단절구간 8개소

□ 이번에 복원되는 이화령은 백두대간의 본줄기(大幹)로서,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를 잇는 고개로 영남지방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본수령이기도 하다.

○ 일제가 지난 1925년 한반도 신작로화를 명분으로 이화령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백두대간이 단절되어 남북 종축의 생태계가 깨지고 민족의 자존심도 크게 손상되었다.

○ 따라서, 이화령 구간의 복원은 민족정기 회복, 생태적 연결 통로의 복원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한반도 생물 다양성의 하나인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및 식물 이동통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이화령 구간이 복원되면 백두대간 등산객, 새재 자전거 길 이용객 및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이화령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백두대간보전 시민연대 박연수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끊어진 백두대간의 복원 필요성이 높았다"며

- 이화령 복원을 계기로 "단절된 자연생태계가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화령 복원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은 "이화령 구간의 복원은 백두대간의 끊어진 허리를 이어 민족정기와 얼을 되찾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화령 복원을 계기로 백두대간의 줄기를 잇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담당: 지역발전과 심홍근 서기관 (02-2100-3846) | 등록일 : 2012.02.01)

[환경부] 봄철 국립공원 방문할 때 통제여부 미리 확인하세요

- ◇ 산불예방 위해 2월 16일부터 설악산 오색~대청봉, 지리산 종주능선 등 124개 탐방로 출입통제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봄철 건조기가 시작됨에 따라 2월 16일부터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통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설악산 비선대~희운각(5.5km), 백담사~대청봉(12.9km), 오색~대청봉(5km),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종주능선(23.8km), 성삼재~만복대~정령치(7.3km) 등 124개 탐방로다
- 반면, 설악산 소공원~울산바위(3.8km), 오색~용소폭포(3.5km) 지리산 증산리~천왕봉(5.4km), 백무동~장터목(7.5km), 성삼재~노고단(5.4km) 등 산불위험이 낮은 483개 구간은 종전처럼 탐방할 수 있다.
- 봄철 산불조심을 위한 탐방객 출입통제 기간은 2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나, 세부사항은 건조한 날씨 등 현지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별도 적용되므로 방문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다.
- 통제기간은 지리산, 계룡산, 소백산 등 14개 국립공원이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이며,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강원권은 3월 5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 이와 더불어 이 기간 중에는 해빙기 눈사태와 낙빙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탐방객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 특히, 2012년 2월부터는 산림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산림청 홈페이지의 산불정보 시스템에도 국립공원별 통제구간을 표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 이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장은 "기상, 적설, 강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방문하려는 탐방로의 통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담당: 재난안전부 최수원 계장 (02-2278-7205) | 등록일 : 2012.02.03)

[환경부] 2일 제16회 '세계 습지의 날', 국민과 함께 의미 나눈다

- ◇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는 "습지관광; 위대한 경험(Wetland Tour; A Great Experience)"
- ◇ 습지 생태여행기 공모전, 동백동산 습지체험 등 다양한 국민 참여행사 마련
- 환경부가 제16회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온 국민과 함께 의미를 나눌 수 있을 국민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2012년 2월 2일 "습지관광; 위대한 경험(Wetland Tour; A Great Experience)"을 주제로 한 제16회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 습지 생태여행기 공모전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세계 습지의 날은 람사르협약 채택(1971년 2월 2일)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 처음 제정됐으며 이후 전 세계 120개국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 정화활동, 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정부(환경부-국토해양부 윤번주관)차원의 기념행사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계획 중인 "습지주간" 행사와 연계해서 실시된다.
 - ※ 2011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는 환경부 주관으로 "습지주간"(5.11~22)을 지정, 전국 30개 기관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진행
- 2012년 주제인 '습지관광; 위대한 경험'은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루마니아, '12.7~13) 주제인 "습지, 관광 그리고 레크리에이션(Wetland, Tourism and Recreation)"과 연계한 것이다.
 - 람사르 사무국에 따르면 2010년까지 94,000만명에 달하는 국제 관광객의 50% 이상이 습지를 방문하고 있다.
 - 습지보전을 전제로 한 관광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편익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보장해, 지역과 국가, 사람과 야생생물 모두를 위한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환경부는 우선 "명품습지, 명품 습지생태여행을 찾아라!"라는 주제의 습지 생태여행기 공모전 2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한다.
 - 이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습지 생태여행을 참여자 스스로 발굴·체험하고 바람직한 습지 생태여행 모델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공모기간 중 습지를 생태적으로 여행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전기자전거 등)을 수여한다.
 - 공모결과에 따른 수상작 선정 발표는 습지주간(미정) 및 생물다양성의 날(5.22)

을 기념해 진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02-509-7961)로 문의하거나, 국가습지사업센터 홈페이지(www.wetland.go.kr) 및 습지 블로그(wetlandkorea.blog.me) 참고

- 이 외에도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백동산 습지체험, 한국 습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명한 온라인 습지사진 특별전을 실시하는 한편, 숨겨진 비경 산지습지를 발굴한 '한국 산지습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습지의 날과 습지주간을 맞아 실시하는 행사들을 통해 국민의 습지 친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습지보전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또 하나 놓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담당: 자연정책과 정의석 사무관 (02-2278-6738) | 등록일 : 2012.02.02)

[서울특별시] 서울시, 관악산·매봉산·안산에 무장애숲길 조성

- 올해 관악산, 매봉산, 안산에 무장애숲길 포함한 총 6.5km 자락길 개통
 - 지세 험난해 오르기 힘들었던 관악산, 이제 보행약자도 절경 즐길 수 있어
 - 매봉산 자락길은 난지공원·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 많은 주민 이용 기대
 -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 10월에 개방해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여
 - 지난해 시범 조성한 곳 설문 결과, 만족·매우만족이 73%, 월 1~4회 방문
 - 2014년까지 10.6km 무장애구간 포함 총 30.6km 자락길 14개소 조성 완료
 - 市, 보행약자들도 근교숲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자락길 조성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어르신, 유모차를 끄는 엄마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무장애 숲길이 올해에도 관악산, 매봉산, 안산 3개산 자락길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관악구 관악산, 마포구 매봉산, 서대문구 안산에 무장애숲길 1.9km를 포함한 자락길 총 6.5km를 조성·개통한다고 2일(목) 밝혔다.
 - 자락길 총 6.5km는 관악산 2.3km, 매봉산 2.7km, 안산 1.5km가 포함되며, 이들 사업에는 총 예산 48억 원이 투입된다.
 - 이는 서울시 '근교산 자락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서대문구 안산 일부구간, 성북구 북한산, 양천구 신정산 총 6.4km 자락길 시범조성에 이은 것이다.
 - 이번에 조성되는 자락길 6.5km 중 무장애숲길 1.9km에는 바닥에 목재데크를 깔아 평평하게 만들고, 휠체어,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은 2m, 경사도는 8%미만으로 조성해 보행약자들이 산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했다.
 - 이때 목재데크 길에는 자락길을 오르고 내리는 시민들의 상호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50m마다 3m~4.5m 폭의 교차공간을 조성하고, 200m 간격으로 휴게시설 설치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들은 우회길을 조성해 보호할 계획이다.
 - 더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목재데크, 마사토, 황토, 돌 등의 자연소재를 활용해 순환형 코스로 조성한다.
 - 무장애숲길이 조성되면 그동안 근교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보행약자들이 등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도시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산림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세 험난해 오르기 힘들었던 관악산, 이제 보행약자도 절경 즐길 수 있어>

- 우선 관악산 자락길의 경우, 총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서 관악산 주변의 많은 보행약자들의 정상등반 꿈을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특히 기존에는 지세가 험난하고 산길이 급경사를 이뤄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산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경사도 1/12 (8%)이하 목재 데크로드를 조성함에 따라 조망명소인 모자봉까지 진입이 가능해져 보행약자들도 누구나 관악산의 절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 된다.
- 서울대학교 정문 옆 관악산 입구에서 호수공원과 숲속도서관을 거쳐 제2광장까지 2km 구간은 기존 진입도로가 평탄하게 깔려있는 상황이었으나, 제2광장에서 모자봉까지 오르는 2.3km 구간은 지세가 험난하고 표고차가 69.6m로 급경사를 이뤄 보행약자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 모자봉은 관악산 초입의 작은 바위봉우리에 관악산 초입의 작은 바위봉우리에 불과하나, 이곳에 오르면 서울대학교 전역과 도림천 상류계곡, 연주대 정상과 삼성산까지 파노라마로 관악산 절경을 즐길 수 있다.
- 이에 더해 서울대학교에서 관악산계곡을 건널 수 있는 길이 35m, 폭5m의 아름다운 목교를 설치해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산책코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또, 주요 지점 곳곳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조류·숲속동물 관찰대를 설치하고 정상에는 한강을 비롯한 서울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한다.

〈매봉산 자락길은 난지공원·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 많은 주민 이용 기대〉

- 또 마포구 매봉산 자락길의 경우, 총 2.7km 구간 중 월드컵공원 만남의 광장 뒤쪽에서 시작하는 입구부터 대체적으로 완만한 구간 3군데가 무장애숲길로 조성된다.
- 이때 충분한 휴게공간과 의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는다.
- 특히 매봉산 자락은 주변에 학교 5곳과 마포구청, 월드컵경기장, 마포농산물시장 등 공공시설, 주거 밀집지역까지 접해있어 등산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만한 산림공간이 부족했으나 이번 조성을 통해 근교에 사는 시민들의 숲탐방과 산책이 가능해졌다.
- 또, 인근 난지공원과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연계 이용이 쉬울 뿐 아니라 6호선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과도 가까워 교통편도 용이해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기대된다.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 10월에 개방해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선보여〉

- 서대문구 안산은 작년에 등산로 초입 400m를 무장애숲길로 개방한데 이어 올해에도 무장애숲길을 포함한 자락길 총 2.7km가 조성돼 10월에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 이 일대는 주거 밀집지역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독립공원, 자연사박물관, 청소년회관 등 문화시설이 많아 무장애숲길이 완성되면 이용객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현재 평일(월~목)과 첫째·셋째주 일요일,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자연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다면 다양한 자연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조성한 곳 설문 결과, 만족·매우만족이 73%, 월 1~4회 방문>

- 한편, 서울시의 무장애숲길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이상 결과가 73%로 나타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시는 시민들의 개선·보완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14년까지 10.6km의 무장애구간을 포함한 총 30.6km의 근교산 자락길 14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2013년에는 동대문 배봉산, 동작 서달산, 종로 인왕산, 중랑 봉화산 4곳에, 2014년도에는 강서 개화산, 구로 매봉산, 노원 불암산, 강동 고덕산, 서초 우면산 5곳에서 조성된다.
- 시민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만족한다는 반응은 24%, 만족 49%, 보통 24%, 불만족 3%, 매우 불만족은 0%로 대다수의 시민이 자락길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 관련 시민이용만족도 조사는 권역별 시범조성 구간(성북 북한산 등 3개소 7.8km)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시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2011.11. 21부터 12. 4까지 2주간 실시했다.
- 일부 불만족 의견이 제시된 것은 무장애숲길(목재데크)보다 자연형 숲길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심리적인 불만요인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 또, 무장애숲길 정비·이용 횟수·교통편에 대한 물음에는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72%), '월 1~4회 정도 방문'(47%), '40~60대(67%) 이용자가 도보(53%)로 이용' 한다고 답했다.
- 최광빈 서울시 공원녹지국장은 "산을 바라보기만 했던 보행약자들도 숲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산자락길을 권역별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며,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가까운 울창한 숲과 공원이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녹색병원의 기능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담당: 자연생태과 현호재 (02-2115-7563) | 등록일 : 2012.02.02)

[서울특별시] 광화문역, 환경 명품 역사로 거듭난다

- 2월 1일(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환경 명품역사 조성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기술교류·공동연구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구축
 - 시범역에 대한 실용적 공기질 개선프로그램 개발 후, 전 역 확대 추진
- 서울도시철도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공기질 등 환경 명품역사 구현을 위한 환경기술 공동개발에 나섰다.
-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는 지난 2월 1일(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홍순만)과 도시철도 환경 명품역사를 만들기 위한 환경기술 공동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 및 지하역사와 터널에 적용 가능한 환경 신기술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기로 했다.
- 첫 단계로 5호선 광화문역을 시범역으로 선정하여,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활용한 공기질 개선연구를 추진한다.
 - 공사는 시범역사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공기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춘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홍순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상호협력을 다졌다.
- 한편, 공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기술교류 회의를 열고, 쾌적한 지하철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 협약체결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본격화하기로 한 만큼, 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실내 환경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술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사관계자는 "최근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역사 및 열차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연구개발을 계기로 외형 뿐만 아니라 공기질까지도 최상의 명품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 담당: 서울도시철도공사 박재철 (02-6311-2496) | 등록일 : 2012.02.01)

[대구광역시]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본격화!

- 의료, 교육, 문화 등 IT기반지식서비스 단지로 조성, 지식경제부 실시계획승인으로 사업추진에 박차

경제자유구역인 수성의료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금년 2월 1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수성의료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지역의 부동산 경기 하락과 사업성 등으로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서 구조조정 결정으로 3개단지 1.76km²에서 1개단지 1.21km²로 축소되었고, 당초 단지별 개발계획은 대흥단지는 국제교육·업무시설, 고모단지는 의료관광, 이천단지는 의료·연구시설로 계획 되었으나, 지구축소로 국제교육, 업무시설 조성 예정지였던 대흥단지만 존치되는 과정을 거쳤다

2011년 12월 6일에는 수성의료지구 내 개발제한구역(1.06km²)를 해제하였고,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L= 3.8km, 사업비 1,180억원)으로 조건부 선정되었던 지구내 간선도로 건설 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7월말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2011년 10월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2년 2월 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의 주요내용으로는 면적이 1,219,510m²이며, 사업비는 7,717억원, 계획인구는 2,200세대 6,216명이다.

특히 수성의료지구는 당초 계획과 같이 의료·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 등 IT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SW 개발과 첨단 IT를 보완한 의료·교육·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능형 지식서비스산업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식경제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지장물 현장 조사와 보상감정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토지 등의 보상과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에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신서혁신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산지식산업지구와 더불어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이 강화되고, 대구경북경제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의 중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 담당: 문화의료지구개발과 김인수 (053-550-1761) | 등록일 : 2012.02.03)

[대구광역시] 대구시, 모텔을 중저가 『일반호텔』로 키운다!

-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여행을 위해 건전한 숙박시설 육성

대구시는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 시 방문객과 여행·비즈니스 출장으로 지역을 찾는 손님이 편안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설이 우수한 모텔 업소를 선별, 『일반호텔』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기존 모텔에 개방 안내실을 설치하고 주차장 차단막을 철거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간편한朝食 제공이 가능한 우수 숙박시설로 바꾸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12개 모텔을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일반호텔』 전환 사업대상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객실 35실 이상으로 안내실 개방과 휴식 공간 확보 등이 되면 신청 가능하다.
- 대구시는 중저가 『일반호텔』 전환사업 대상자에게는 명칭변경(모텔→호텔) 및 시설 개선 경비로 500만 원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코레일 패스(내일로, 자유여행)여행객 숙박비(1인당 5,000원) 등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 시 우선배정, 숙박 상담자 안내, 온라인 홍보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추진하는 중저가 『일반호텔』 지정 사업은 객실 요금이 종전 모텔과 같은 4만~5만 원 수준이어서 체류하는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출장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시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 부진과 손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숙박업계에 도움은 물론 그동안 대구시가 국제 행사 유치에 따른 숙박 부족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숙박업계와 대구시가 『동고동락』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담당: 식품안전과 조혁규 주무관 (053-803-4111) | 등록일 : 2012.01.31)

[부산광역시] '갈맷길 7백리' 걸으면서 부산을 느껴 보세요!

◆ 단절구간 없는 갈맷길 지정 : 시 외곽을 순환하도록 코스 조정

◆ 갈맷길 코스 조정 : 21코스(302.5km) → 9코스 20구간(263.8km) ◆ 갈맷길 명칭 통일화 : 지역별 대표 지명 → "제 ○코스 ○구간"

◆ 코스 등급 설정 : 소요시간, 거리, 노면상태, 경사도 등 감안, 상?중?하 등급 지정

부산시는 갈맷길을 기존 21개 코스에서 9개 코스 20개 노선으로 조정하고, 1개 코스(20~30km)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지역명(광안리~이기대~자성대길)을 중심으로 불리던 갈맷길 명칭을 제○코스 제○구간(제2코스 제2구간)으로 통일화하고, 코스별로 소요시간, 거리, 노면상태, 경사 등을 감안, 코스를 상?중?하로 등급화하여 길을 걷는 시민들이 본인의 역량에 맞게 길을 선택하여 걸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갈맷길에 대한 코스조정, 명칭 통일화, 코스 등급 설정 등은 부산시가 2011년 갈맷길 관리운영의 구체적 'Action Plan'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던 '부산시 갈맷길 조성 및 관리운영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산시는 지난 2010년 '부산시 그린웨이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통해 갈맷길 21개 코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후 빼어난 풍광 등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갈맷길을 찾고 있으나, 단절구간으로 인한 코스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등산로와 도심 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걷기에 부적합하고 코스의 명칭도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갈맷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번 용역에서 기존의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절구간 없이 시 외곽을 순환하도록 코스를 조정하여 부산 전역을 트레킹 할 수 있도록 동백섬과 광안리 해수욕장 연결 등 8개 구간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또한 등산로로 걷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산 너털길, 승학산길 등 8개 코스를 제외하였다.

아울러 이번 용역 결과에는 △갈맷길 전담단체 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마일리지 제도 도입 △여행자 수첩 제작 △문화·공연 연계프로그램 운영 △길 안내자 양성 등을 통해 갈맷길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갈맷길을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용역 수행과정에서 실시한 갈맷길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제2코스(문탠로드~광안리해수욕장~오륙도 유람선선착장)가 자연환경과 양호한 시설 등의 이유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봄에는 제1코스(임랑해수욕장~대변항~문탠로드), 여름은 제2코스(문탠로드~광안리해수욕장~오륙도 유람선선착

장), 가을에는 제7코스(성지곡수원지~금정산 북문~상현마을), 겨울에는 제9코스(상현마을~이곡마을~기장군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갈맷길 코스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갈맷길 700리'의 코스별 상세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구·군과 함께 변경된 코스별 시설물을 조속히 정비·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담당 : 자치행정과 이정임 (051-888-2294) | 등록일 : 2012.02.06)

[부산광역시] 부산, 국제크루즈 중심지로 정착

- ◆ 올해, 부산에 66회 168천명의 국제크루즈 관광객 부산 방문 예정
- ◆ 국내최초의 국제크루즈'클럽하모니'호 부산 모항으로 2월부터 운항 시작

지난해 일본지진의 여파로 대폭 감소했던 국제크루즈의 부산 입항이 2010년에 이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선다.

2010년 77회 130천명이 국제크루즈로 부산을 방문했으나, 2011년은 일본지진 등의 여파로 42회 76천명의 국제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66회 168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보다 관광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부산이 주요 크루즈 관광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클럽하모니호가 국적선으로는 처음으로 오늘(2.1) 취항식을 갖는다. 클럽하모니호는 부산을 모항으로 연간 70회 정도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크루즈 도시로 변모될 전망이다.

올해 부산을 입항하는 국제크루즈의 특징을 살펴보면, 로얄캐리비안크루즈사의 보이저호(14만톤)와 같이 대형크루즈 입항으로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형 크루즈가 입항하지 못하는 작은 항만 및 도시에 입항을 주로 하는 호주국적의 아태지역 탐험 전문 선사인 Orion Expedition Cruises사의 초호화 크루즈인 오라이언 2(4천톤)도 7회 입항할 예정으로 대형과 소형 크루즈선이 다양하게 부산을 찾을 계획이다.

한번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먼저, 협소한 공간으로 혼잡했던 면세품인도장을 확장이전하고, 관광안내소, 기념품판매소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한복을 착용한 크루즈버디와 기념 촬영 기회 제공,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교향악단,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등의 다양한 환영·환송공연도 준비하는 등 환영 분위기 조성, 개별 자유여행객을 위해 어권별 통역 가능한 관광안내원이 시내투어 안내, 남포동 일원에 통역가능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언어소통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클럽하모니호의 부산취항을 계기로 부산이 동북아 국제크루즈의 중심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크루즈 유치활동과 클럽하모니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크루즈 중심지 부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 담당 : 관광진흥과 김인재 (051-888-3514) | 등록일 : 2012.02.01)

[부산광역시]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 앞 어업권 정비

- 해양레포츠 등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해양레포츠가 활발한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의 종합적인 이용 및 사계절형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동항, 미포항 주변 미역양식어장 2개소(총 40ha) 정비

◆ 상반기에 양식장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 하반기에 어업권 폐업보상 후 정비작업 완료

부산시는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의 종합적인 이용 및 사계절형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미역양식어장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해운대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해양관광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양관광 및 문화축제 등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 해양레포츠를 중심으로 한 사계절형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 앞에 양식어장이 위치하고 있어 자유로운 해양레포츠 활동 및 요트대회 등 각종행사 시 대회구역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에 정비를 추진하는 지역은 우동항과 미포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미역양식어장 2개소다. 총 면적 40ha로, 부산시수협장이 어업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수산업법에 의거 해당 어업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32억원을 올해 본예산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어업권자인 부산시수협장, 면허처분권자인 해운대구청장과 손실보상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시행에 따라 면허처분권자인 해운대구는 상반기 중 양식장 감정평가를 의뢰해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어업권 폐업보상 후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미역양식어장은 주변 지역 어업인들의 주요 수익원이며, 수산물 생산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업권 정비계획은 매우 어렵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정비가 완료되면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이 명실상부한 고품격 사계절형 해양레저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우동항·미포항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개선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담당 : 수산정책과 한승미 (051-888-3275) | 등록일 : 2012.02.01)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출범기념 3개호텔 통합 프로모션 실시

- 트리플 초이스 쿠폰 출시, 2월 1일부터 호텔 홈페이지 통해 한정 다운 가능
-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가 공사의 새로운 출범과 3개 호텔의 통합운영을 기념하기 위해 통합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 '트리플 초이스(Triple Choic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이 3개 호텔의 객실과 레스토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쿠폰이다.
- 이번 쿠폰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련 호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 가능하며, 한정 수량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인천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하버파크, 송도브릿지, 송도파크 등 3개 호텔은 그동안 인천호텔산업의 수많은 변화와 시장 확대를 이끌어 내고 독자적 위상을 구축해 왔다.
- 앞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3개 호텔의 통합운영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수익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사 관계자는 "이번 통합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은 기존에 비해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호텔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지역호텔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인천시민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담당 : 인천도시공사 안영천 과장 (032-260-5356) | 등록일 : 2012.02.01)

[대전광역시] 대전시, 의료관광 활성화 '본궤도' 오른다

- 2014년, 해외환자 1만명 목표...의료+관광+쇼핑'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 병원 밀집한 둔산동 지역'메디컬스트리트'조성...의료관광 메카로 발돋움
- 대전시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객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 30일 대전시는 올해 3000명, 2014년까지 해외환자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둔산동 지역을'메디컬스트리트'로 조성하는 등 14개의 장단기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의료관광 공감대 형성과 체계를 높이기 위한 10개의 단기과제로 우선 ▲의료팀 ▲관광팀 ▲쇼핑팀 등 3대 분야로 나눠 15명 규모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료관광 포럼을 구성해 정례화 한다는 계획이다.
- 또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 등을 활용한 구전홍보(Word of Mouth Marketing)로 환자를 유치하며, 마이스(MICE)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 참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시적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아울러 의료기관의 분야 및 규모별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된다.
- 이외에도 포상의료관광의 전략적 추진, 의료기관 해외 현지 사무소 설치 확대, 타깃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시범사업 추진,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활성화, 해외시장 정보제공체계 구축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시는 지속가능한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4개의 장기추진 과제로 140여개의 병·의원이 밀집된 둔산동 지역을'메디컬스트리트(Medical street)'로 육성하며, 유성온천(외국인 건강거리 등) 및 휴양림(치유의 숲 등)을 활용한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이 육성된다.
- 또 환자유치에 있어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 유치를 위한 채널을 구축, 환자규모 및 치료 성과 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발굴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 아울러 신규 개발지를 중심으로 민자 유치를 통한 고급호텔 및 쇼핑몰 등 관광·숙박시설의 인프라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 윤태희 대전시 복지여성국장은"의료관광산업은 미래를 열어갈 대전의 차세대 선도 사업으로 이번 활성화 대책이 환자유치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 의료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담당 : 보건정책과 박희용 (042-600-5288) | 등록일 : 2012.01.31)

[광주광역시] 광주시, 여수엑스포 활용 해외관광객 유치 총력

- 구·미주, 대양주, 동남아 관광객 등 5천명 유치 관광상품 판매협약 체결

광주시는 여수엑스포가 광주, 전남·북 해외 관광시장 개척의 새로운 전환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국, 구·미주, 대양주, 동남아 지역으로 관광시장을 확대하며 해외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3일 오후 5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구·미주 관광객유치 전문여행사인 '유에스여행'을 비롯한 미국, 호주,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온 여행사 대표자와 관광객 5천명을 모객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관광상품 판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 주관여행사인 '유에스여행'은 지난 2008년 3월 광주시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구·미주 해외관광객의 광주유치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단체관광객뿐만 아니라 개별자유여행(f.i.t)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5천명 판매협약은 여수엑스포를 적극 활용해 근거리 관광시장인 동남아, 러시아 극동지역 관광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장거리 관광시장인 구·미주, 대양주지역을 개척하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여수엑스포 기간 중 행사장내 광주시 홍보관을 운영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숙박예약과 관광지, 식당안내 등을 one-stop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과 광주시내 호텔을 연결하는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해 광주를 찾고자 하는 개별자유여행(f.i.t)이 불편함 없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북경, 상해, 남경, 심양, 무한, 복건 등 6대 전략거점을 활용해 중국관광객 5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지난 1월초 남경중국여행사와 1만명 판매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5월에 개최하는 여수엑스포는 서남해안권 관광루트화를 고착시키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2014년 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광주를 거점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해외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 관광진흥과 (062-613-3630) | 등록일 : 2012.02.03)

[광주광역시] 광주시, 숙박업소, 맛집안내 한 권에,,,,**- 관광호텔, 크린숙박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정보 수록**

광주시는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 숙박정보 등이 담긴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관광호텔과 크린숙박업소 내·외부 사진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 객실정보, 찾아가는 길과 맛집, 연계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을 수록했다.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2,200여부를 제작해 전국 시·도 및 광주지역 버스 터미널, 역, 공항 등 관광안내소에 배포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크린숙박업소 제도를 도입해 60여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시작하는 여수expo 지정업소가 되도록 신청 중에 있다.

한편, 광주시는 공항과 역, 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60여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숙박업소를 안내할 때에는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책자나 시 홈페이지 관광숙박란(크린숙박업소)에 게재된 정보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 식품안전과 (062-613-4380) | 등록일 : 2012.02.02)

[광주광역시] 광주시, 무등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쟁점

- 2. 3(금) 14:00, 시청 소회의실, 등재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계전문가, 한국 유네스코 관계자,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통합당 김영진 의원과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서영배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대한 학술적 자문, 유네스코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무등산에 대한 자료조사 협조, 향후 추진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생성과 발달의 원인이 다양하고, 해발 1000m 이상 고산 정상부에 발달해 지구기후환경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유산이라는 점을 들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무등산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주상절리는 화산활동의 산물인 마그마가 식을 때 사각형 내지 육각형의 형태를 갖추며 식어 풍화작용에 의해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의 주상절리대는 그 암석이 현무암인데 비해 무등산의 서석대와 입석대 등은 안산암으로 국내에서는 특이한 것이다.

또한 다른 곳의 주상절리가 파도와 같은 물에 의한 침식의 결과인데 비해 무등산은 주빙하기후환경에서 물이 얼었다 녹았다는 반복하면서 오늘날 지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산 중턱 이상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너덜경은 주상절리대가 무너져 내린 것이 쌓여 만들어진 지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광역시, 담당 : 문화수도예술과 (062-613-3460) | 등록일 : 2012.02.01)

[강원도] 강원도,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7만명 급증

- 2011년도 조사결과 156만명 방문, 전년대비 12.2% 증가

□ 강원도가 연평도 포격사건, 구제역, 김정일 사망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가 조사한 외국인 관광객 방문통계 결과, 지난해 도내에는 2010년 139만8천명 보다 17만명이 증가한 156만 8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12.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방문 관광지로는 대표적인 한류관광지로 알려진 남이섬이 42만 6천명(28.3%)으로 가장 많고, 고성 대명설악콘도 15만명(9.6%), 보광 휘닉스파크 8만3천명(5.3%), 알펜시아 7만7천명(4.9%), 용평리조트 7만6천명(4.5%)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춘천이 45만8천명(29.2%), 평창 31만명(19.8%), 속초 16만 5천명(10.5%), 고성 17만6천명(11.2%), 강릉 13만3천명(8.5%), 정선 8만 2천명(5.2%) 순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은 주로 한류관광지와 스키리조트, 설악산, 강릉의 역사문화관광지를 비롯해 정선 카지노와 레일바이크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화부 지침에 의거 도내 외국인 방문지 90여개 조사지점에 대한 통계결과임

□ 특히, 남이섬의 경우, 2010년 33만2천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는 9만4천명이 늘어난 42만6천명이 방문하여 28.3%나 급증하였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 관광지로써 세번째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월중 전국 통계결과나 나오면 최종 순위 확인 가능) 남이섬 방문객중 국적별로는 태국이 14만9천명(34.9%)로 가장 많고, 대만 8만8천명(20.7%), 말레이시아 4만9천명(11.5%), 중국 4만1천명 (9.6%), 인도네시아 2만5천명(5.9%) 순으로 방문하여 주로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요인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 일고 있는 한류영향으로 남이섬을 비롯한 한류관광지 방문이 크게 늘어 났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화천 산천어축제 등 겨울축제의 성공으로 해외에서 겨울관광의 인지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강원도가 그동안 해외 관광사무소 설치(2개소), 현지 메이저급 여행사와 MOU체결(53개 업체) 등 주력 시장에 대해 상당한 공을 들여 왔으며, 지난해 타깃 시장 관광전 참가홍보 18회, 대규모 소비자 홍보 행사 3회, 세일즈 콜 63회, 해외 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도 전년보다 35% 증가한 90회(1,538명)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 강원도(환경관광문화국장 김남수)는 일본, 동남아 지역 등 기존 주력 시장

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상반기에 북경관광사무소 신설과 대도시 소비자 홍보행사 등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2배 강화해 나가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동해안 횃집촌 등 주변 연계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쇼핑시설, 특산품, 먹거리(음식)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 담당 : 관광마케팅본부 (033-249-2862) | 등록일 : 2012.02.06)

[강원도] 강원도,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행정지원본부 구성·운영

- 강원도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이하 '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두영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10개부, 22개반의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하고, 2. 21(화)~2.25(토)까지 5일간 개최되는 프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 행정지원본부는 스페셜올림픽이 △지적장애인이 참가하는 올림픽이라는 점 △대회 준비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원도 차원의 완벽한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 행정지원본부는 스페셜올림픽의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과정과 스페셜올림픽 기본계획을 참조, 관련된 전분야가 참여하여 재정지원부, 환경관광부 등 10개부와 22개반으로 구성하였다.
 - 행정지원본부의 운영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유관기관·단체·시군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스페셜 올림픽이 지적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저변확대,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면서 지적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올림픽으로서 어느 대회보다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측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 완벽한 대회개최에 나설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은 "2013스페셜 올림픽이 지적장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수 있는 세계최고의 대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담당 : 국제행사과 (033-249-2944) | 등록일 : 2012.02.04)

[강원도] 「녹색쌈지공원」 조성 등 녹색 도시숲 본격 추진

- 강원도는 도심지내 도로변, 시가지, 주택가 등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활용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쌈지공원 등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도는 올해 38억원을 투자하여 춘천시 등 11개 시·군에 녹색쌈지공원과 산림공원 8개소를, 원주시 등 3개 시·군 10km 구간에 명품가로숲길과 가로수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도내에 도시숲 및 산림공원 등 255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 지역주민 모두가 보고, 느끼고, 즐길수 있는 도 시내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 앞으로도 도시숲 조성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지내 숲·가로수 등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더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담당 : 산림정책과 (033-249-2736) | 등록일 : 2012.02.01)

[경상남도] 부곡온천 · 통영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최종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4개소 중 5개소 선정
- 정부 상사업비 16억 원 지원

창녕 부곡온천과 통영 미륵도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2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1차 평가 시 전국 14개소 중 7개소가 선정되고 2차 및 3차 평가를 통해 최종 5개소를 선정한 가운데 우리도가 지원한 창녕부곡온천과 통영 미륵도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의 경우 700㎡ 규모의 지상 2층 다목적 문화공간 및 온천 체험시설인 '르네상스관'이 건립되고 홍보전시관 설치를 통해 온천관광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통영 미륵도 관광특구에는 이순신 함대 진격로 26km의 한산대첩 산책길이 조성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동 산책길을 현장체험 학습의 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조성된 한려해상 조망케이블카 등 더 큰 관광특구 시너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비 16억(개소당 8억), 도·시·군비 16억 원이 지원되어 32억 원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동 사업 대상선정으로 경남도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담당 : 관광진흥과 이주현 (055-211-4835) | 등록일 : 2012.02.02)

[경상남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300만 명 경남유치 준비완료

- 박람회 관람은 여수에서 관광은 경남에서

경상남도에서는 2012 고성공룡세계엑스포(3.30 ~ 6.10),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5.12 ~ 8.12)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목전에 두고 관람객 유치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관람객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특히,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300만명 경남 유치 목표로 관광마케팅 특별대책을 세웠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개최지가 경남과 연접한 1시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박람회 관람객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이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거쳐 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미국 뉴스전문 CNN에서 한국의 대표관광지 TOP 50을 선정 발표하면서 남해 가천 다랭이마을 등 9개 가봐야 할 곳을 발표하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관광객유치 중점대책을 발빠르게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철저한 준비로 호평을 받고 있다.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중점대책으로

첫째, 우리 도의 우수 관광상품 발굴하여 현장방문 국내외 관람객 및 네티즌에게 홍보를 확대할 계획임

경남지역은 여수박람회장과 최단 연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 진출입이 매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해, 하동, 통영, 거제, 고성, 사천 등 남해안에 산재한 아름다운 섬, 사찰, 문화유적지, 체험마을 등 가보고 싶은 관광지 코스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지를 소개

또한 역동적이고 신선한 DVD 1천매, 홍보자료 330천매를 제작하여 홍보에 주력

둘째, 미국 뉴스전문 CNN 선정 경남관광명소 홍보에 주력

미국 뉴스전문 CNN에서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좁은 서울지역에만 있게 된다면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테마로 지난 1월 전국 Top 50을 선정하여 발표하면서 우리 경남지역에는 남해 가천 다랭이 마을, 진해 경화역, 창녕 우포늪, 합천해인사, 지리산 천황봉, 진해 여좌천 벚꽃길, 함양 다락논, 합천 황매산 철쭉축제, 진주 축석루 등 9개소가 선정되었음.

이렇게 경남지역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제일 많은 지역이 선정된 것은 경남도

의 우수한 관광상품이 국외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어 국제행사 시 관광객 유치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임

셋째, 머물면서 쉴 수 있는 『Temple Stay』 추진

여행작가, 여행블로그, 문화관광전문가, 사찰체험, 명상 마니아 등을 대상으로 도내 9개소 사찰에서 1천명에 달하는 Temple Stay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남도가 머물면서 쉴 수 있는 관광지역임을 널리 홍보할 것임

넷째, 인터넷 웹사이트·스마트폰 모바일 공격적 홍보에 강력 추진

국내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웹사이트와 2천만대를 넘어선 스마트폰 고객들에게 경남도 내 추천여행코스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관광붐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신선하고 알찬 IT시스템 홍보에 주력할 것임

또한, 중국, 일본 『Travel Blog』 들에게 경남의 우수관광코스를 제공하여 동남권에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에 경남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며

SNS 정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의 SNS 57%를 점하고 있는 「Weibo」를 6월 이전에 개설하여 중국 관광객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3월~5월간 일본·중국 해외관광 설명회와 관광박람회 경남도 홍보관을 이용하여 외국 관광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다섯째, 『경남관광안내소』를 이용하여 관광객 홍보 및 맞춤형 안내에 주력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은 행사장에서 17킬로미터 외곽지역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2개브릭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어 환승주차장 이용 예정 관람객 『870만명』에 대하여 안내요원 2명과 홍보요원 5명을 배치하여 직접 피부로 와 닿는 현장 홍보에 주력할 것임

여섯째, 외래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으로 관광객 유치 추진

경남도에서는 10인 이상 단체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 숙박 시 숙박료 1인당 1~3만원, 광고비 1~2백만원, 크루즈 4백만원, 버스 임차료 대당 1십만원 등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월 중에 도내 Inbound 외국인 전담여행사와 간담회를 거쳐 외래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것이며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현장 투어를 직접 경험토록 하여 외국인 유치에 적극 추진할 것임

일곱째, 경남의 문화관광 해설사 적시 투입하여 관광객 안내에 힘쓸 것임

도내에 육성한 관광해설사 208명에 대한 워크숍을 4월중에 개최하여 관광해설사에

대한 자질을 높이고 관광투어 시 해설사를 통한 관광안내에 적극 지원할 것이며 원어민을 이용한 통역사를 양성 발굴하여 외국인이 경남지역을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임

여덟째, 공항, 고속도로, 다중집합시설 내 관광안내소 관광 홍보 적극추진

김해, 사천, 함양, 고성, 창원 등 7개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12명을 이용하여 내·외국인 관광 안내 시 가보고 싶은 곳, 체험하고 싶은 곳, 걷고 싶은 곳 등 관광객 입맛에 맞는 맞춤형 관광 코스를 적극 추천하여 관광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지원할 것임

아홉째,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경남지역 유입 크루즈, 여객선 취항을 지원계획임

현재 남해군 서항에서 여수항 간 1일 3회 운항하는 여객선을 크루즈급으로 하여 여수박람회장 내 선착장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선석 신청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통영, 거제지역까지 크루즈, 여객선 투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임

열번째,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 지원에 주력할 계획임

여수세계박람회 장을 찾는 서부경남권 관광객들이 야간에 귀가 또는 경남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하여는 버스, 열차 이용이 빈번할 것에 대비하여 노선별 여객버스업체, 코레일측에 야간 운행시간을 조정토록 하여 관람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관람객 유치에 주력할 것임

(경상남도, 담당 : 관광진흥과 정필순 (055-211-4823) | 등록일 : 2012.02.02)

[충청북도] 청남대, 겨울철 전국 최고 관광명소로 '발돋움'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청남대는 2003년 민간에 개방하여 2004년 관람객 최고치(100만 명)를 기록한 이후 관광 수요층의 기대심리 저하, 접근성 불편, 국내외 경제 위기에 따른 관광 소비 위축 등으로 그동안 감소 추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2009년(50만 명)을 기점으로 2010년 62만 명, 2011년 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연 15%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에는 계속된 한파와 강설에도 불구하고 12,525명이 다녀가 전년도 동기대비 90% 이상 증가하는 등 04년 이후로 최고의 입장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관광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관광객의 증가는 그동안 역사문화관 확장, 역대 대통령길 조성 등 볼거리·체험거리의 제공을 통한 관광기반의 확충 및 승용차의 입장 허용에 따른 접근성의 개선과 대대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 중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리더십·스피치 능력향상, 역사인식 고취를 목표로 「프레지던트 리더십 캠프」(3회, 초·중·고 학생 총 127명)를 개최하여 도 내·외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설연휴 특별개방, 홍보영상물 전광판 홍보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향후 이를 확대 시행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7~8월) 총 3회 1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중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주말캠프를 신청하여 1박2일 「주말캠프」를 운영, 청남대가 대통령 테마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제10회 청남대울트라마라톤 대회, 청남대 개방 9주년 행사로 야간조명 점등식, 대통령길 걷기대회, 청남대 야생초화 전시회, 야간개장 및 각종 주말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통령테마 관광명소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담당 : 공보관 | 등록일 : 2012.02.02)

[충청북도] 관광객 모두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 가장 인상적

충청북도가 지난해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관광 성수기인 8~9월 2개월간 도내 주요관광지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내 관광지 가운데 속리산국립공원과 법주사, 청남대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인상깊었던 점으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꼽았으며, 방문자의 유형으로는 거주지는 수도권, 관광정보 습득방법은 인터넷, 체류기간은 1박 2일이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거주지, 방문목적, 여행형태, 체류기간, 대표관광지, 관광여건 만족도 등 23개 항목에 대해 총 1,244명[내국인 899명, 외국인 345명(일본인 112, 중국어권 110, 영어권 123)]이 응답(응답률 95.7%)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 중 거주지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지역 비중이 43.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초부터 최대 관광시장인 수도권을 타깃으로 한 전광판·KTX·지하철 광고, 찾아가는 관광설명회, 팸투어, 거리 홍보전 등 폭넓은 홍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정보 습득 경로로 내국인은 주로 인터넷(39.9%), 주변사람의 추천(34.2%), 관광안내물(14.6%)을, 일본인은 인터넷(37.9%), 여행사를(28.4%), 중국어권은 여행사(39%), 인터넷(33.1%)을, 영어권은 인터넷(38.2%), 주변사람(20.8%)을 통해 여행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체류기간도 내국인이 1박2일(37.3%), 당일(35.1%), 2박3일(20.9%), 3박4일(6.6%)로 지난해 대비 당일여행 비율이 5.9% 증가했다.

여행형태도 내국인은 대부분 가족여행 및 개별여행이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단체여행 4.1%, 여행사단체여행 3.3%, 수학여행은 0.7%에 불과하였다.

충북관광에서 가장 인상깊은 점으로 내국인(65.1%), 일본인(62.7%), 중국어권(43.1%), 영어권(46.5%) 모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은 속리산국립공원과 법주사를 꼽았다. 내국인(38%), 일본인(45.7%), 영어권(35.7%) 모두 '속리산국립공원'을, 중국어권은 '법주사'(41.9%)를 선정했다. 충북하면 떠오르는 대표관광지로는 내국인(39.7%)과 영어권(48.6%)은 '속리산국립공원'을, 일본인(34.5%)은 '법주사'를, 중국어권(55.6%)은 '청남대'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기념품 구입에 있어서는 내국인(34.1%) 일본인(22.8%)은 농특산품을, 중국어권(23.3%)은 일반기념품을, 영어권(26.9%)은 전통공예품을 선호하였다.

충북관광객중 내·외국인 모두 쇼핑상품과 관광안내표지판 및 안내도 등을 불편한 것으로 꼽았으며,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완할 사항으로 내국인은 관광상품 개발(30.1%), 홍보(28.7%), 관광자원 개발(27.2%)을, 일본인은 관광상품 개발(31%), 중국어권은 홍보(32.4%), 영어권은 관광자원 개발(33.9%)로 응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결과로 여성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2.5%, 50대 장년층은 지난해 대비 5.3%가 증가하였고, 여행형태 중 개별 및 가족여행이 내·외국인 모두 증가함에 따라 여성층, 장년층 및 개별 및 가족여행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위주로 하고 있는 여행사들의 경영방식을 내·외국인의 충북여행(인바운드)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충북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여행형태 변화에 맞는 관광마케팅과 차별화된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며 관광안내표지판 및 안내도 등 관광객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담당 : 공보관 | 등록일 : 2012.01.30)

[충청남도] 작년 바다낚시객 크게 늘었다

- 총 39만4천명 전년대비 10만명 증가...수입액은 368억원

지난해 충남 서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보령과 당진, 태안, 서산, 홍성, 서천 등 도내 6개 시·군 연안 낚시어선 이용객은 총 39만4천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29만4천명에 비해 10만명(34%)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지역별로 보면 태안군이 17만3천371명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가 10만3천62명, 당진시 9만명, 서천군 1만5천65명, 서산시 6천594명, 홍성군 6천명 등으로 집계됐다.

바다낚시객 증가에 따라 총 수입액도 늘었는데, 지난해 낚시어선 전체 수입액은 368억원으로 2010년 333억원에 비해 10% 가량 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낚시어선이 2010년 986척에서 지난해 1천306척으로 32% 증가함에 따라 어선 1척당 수입은 3천400만원에서 2천8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처럼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서해 연안에서 초보 낚시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주꾸미나 갑오징어가 많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96년 도입된 낚시어선 제도는 국민 소득증대와 주5일제 근무 확대 등 여가 환경 개선으로 급격히 성장, 어촌지역 대표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다낚시 인구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어업외 소득인 '즐기는 어업'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담당 : 수산과 김중략 (042-220-3533) | 등록일 : 2012.02.06)

[전라북도] 수학여행단 인솔은 우리에게 맡겨요

- 전라북도,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양성 시작
- 방문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풀코스 지원
 - 『2012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북을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의 안전성 확보와 인솔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학여행 전담지도사가 본격 양성된다.
 -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31일까지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공개모집한 결과 최종 7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오는 2월 6일부터 수학여행 전담지도사의 기본소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
 -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기초 소양교육과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3주 동안 총 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주요 과목은 수학여행 전담지도사의 목적, 역할, 서비스 마인드, 업무 프로세스 등 기본 소양교육과 스피치 기법, 이미지메이킹, 레크리에이션 등 의사전달 능력, 그리고 수학여행 핵심코스, 각 시·군의 학습 관광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등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과정이 운영된다.
 - 전라북도는 교육수료 후, 3월부터 이들을 각급학교 교사단 초청 사전답사 진행시 투입하여 문제점 조기 발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학여행단을 맞이할 계획이다.
 -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는 최대 1학급당 1명이 지원되며, 전북을 방문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전북 학습관광자원에 대한 소개, 학생들 안전성 확보, 교사와 공동으로 학생 인솔 등 학생들에게는 만족감을 높여주고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근심을 해소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도는 이와 함께 공연 및 레크리에이션 지원, 수학여행 안내 전담 콜센터 운영, 수학여행 후기 UCC 공모전, 숙박시설 및 음식점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안내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라북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문화유산까지 학습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전담지도사 지원, 공연·레크리에이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전라북도 수학여행 이미지가 전환될 것이며, 15만명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담당 : 관광산업과 (063-280-3393) | 등록일 : 2012.02.02)

[전라남도] 전남 뱃길 관광객 200만시대 활짝

- 지난해 221만명 전년보다 14% 늘어...색다른 선상체험·초고속 제주항로 등 한 몫

전남 뱃길 관광객 200만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목포, 여수, 완도 등 전남도 내 주요항구에서 제주 등 뱃길을 이용한 해양관광객이 221만명을 기록, 전년(194만명)에 비해 14%가 늘었으며 올해는 250만명 돌파가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월별로는 4월, 5월과 관광 성수기인 8월에 가장 많은 25만~26만명이 방문, 하루평균 8천600명이 이용한 셈이다.

이용 항별로는 목포항 48%(106만명), 완도항 21%(47만명), 장흥 노력도항 13%(29만명), 여수항 10%(21만명), 녹동항 8%(18만명) 순이었다.

목포항 관광객이 많은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KTX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에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고 흑산도, 홍도 등 경관이 아름다운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 뱃길을 이용한 제주도 관광객은 95만2천명으로 지난해(76만3천명)보다 25%가 늘었다. 이는 그동안 제주 여행객들이 항공편을 주로 이용했으나 안전하면서 다양하고 색다른 선상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남에서 제주간 뱃길 시간이 단축된 것도 한 몫 했다. 실제로 2010년 7월부터 장흥 노력도에서 제주도 성산포를 1시간50분대 주파가 가능한 오렌지호가 운항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호텔식 부대시설을 갖춘 2만4천톤급 스타크루즈호는 1천900여명의 승객과 차량 520여대를 싣고 제주도까지 4시간 20분만에 도착한다.

완도항에서는 1971년부터 제주까지 운항해온 카페리선 '한일2호'가 초쾌속선 불루나래호로 대체돼 지난달 19일부터 1일 2회 운항, 1시간 40분대에 주파하는 등 제주 뱃길 이용이 한층 편리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앞으로도 해남군 등 시군별로 신규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가는 시간이 가장 짧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뱃길 관광에 제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해양항만과 (061-286-6830) | 등록일 : 2012.02.04)

[전라남도] 경관 뛰어난 바닷가, 국민 여가 휴향지로

- 전남도, 국토부 사업에 9곳 선정 전국 최다...2019년까지 1천410억 투입

전라남도는 고흥 용동지구 등 경관이 뛰어난 바닷가 유희 부지 9개 지구에 오는 2019년까지 국비 1천182억원을 포함 총 1천410억원을 투입, '국민여가 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민여가 휴양지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복합 휴양타운' 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93개 지구를 대상으로 수차에 걸쳐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전국적으로 선정된 25개소 중 전남이 전국 최다인 9개소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고흥 용동지구를 시작으로 2013년 보성 울포와 함평 돌머리, 2014년 완도 신지, 2015년 목포 북항과 신안 유각, 우전, 2016년 진도 수유와 고흥 봉영지구가 각각 착공된다.

이들 사업지구에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 등 해양을 이용한 체험형·휴양형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저가의 숙박시설과 주변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해양테마공원, 해수치유체험센터, 해안누리길, 백사장정비, 갯벌체험장 등의 다양한 해양휴양 시설을 개발해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와 휴양시설을 갖추게 된다.

특히 민간자본이 투입될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국내 유수의 관광개발사업자, 호텔 사업 운영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사업 성과가 지역에 파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들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사업 외에도 국비 486억원을 들여 여수 만흥지구 연안해역복원사업과 해양레포츠타운 건립사업, 광양 중마·금호 해상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실시설계비 등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와 시군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지구가 선정돼 전남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국비로 적극 개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선정된 국민여가 휴양지 사업지구에 대해 올 상반기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한 후 사업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고흥 용동지구를 비롯해 전국 6개 지구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담당 : 해양항만과 (061-280-6860) | 등록일 : 2012.02.01)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일본 시즈오카 (静岡)현 '한류스타' 활용 관광객 유치 마케팅 실시

- 관광산업이 침체하는 일본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펼쳐지고 있음
- 한 예로 시즈오카현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음식, 역사 탐방 상품 등을 새로운 관광 소재로 내세우고 있음. 흥미로운 것은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한류스타'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하마나 호수 주변의 호텔 '하마나 레이크 사이드 프라자'에서는 2010년 7월 배우 '서도영'씨의 팬미팅을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많은 한류스타 유치에 힘쓰고 있음. 아이돌그룹 '초신성'의 라이브 이벤트, 가수 '비'가 출연한 드라마 촬영 장소 등으로 대여해 주기도 함
- 작년 8월에는 가수 이홍기씨와 일본의 여배우 타카시마씨가 출연한 한일합작 드라마 '노리코 서울에 가다!' 제작 발표회도 동 호텔에서 개최, 하마나 호수와 하마마츠 시내 등을 촬영 장소로 사용하기도 함
- 향후에도 시즈오카현은 한류스타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갈 계획임

(출처: 요미우리 신문, 2012.1.30)

<http://www.yomiuri.co.jp/e-japan/shizuoka/news/20120129-OYT8T00791.htm>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옥신 | 등록일 : 2012.02.02)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호주 배낭여행객들, 여행비용 부담으로 시드니에만 머물러

- 호주를 방문하는 배낭여행객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토 전체를 여행하려는 계획을 보류하고 시드니에 묶여 있음
- 배낭여행 산업 업계는 뉴사우스웨일주 외에 다른 주를 방문하는 배낭여행객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음
- 연례 해외방문객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호주를 방문하는 전체 배낭여행객의 숫자는 2007년과 동일하였지만 많은 주에서는 배낭여행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
- 퀸즐랜드주에서는 3만 5천명,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1만 8천명, 노던 준주에서는 1만 5천명이 감소하였음
- 전체적으로 배낭여행객의 수는 2010년 대비 3% 하락하였음. 그레이하운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운영책임자 Tony Hopkins씨는 이와 같은 상황에 시급히 주목해야 한다고 함
- 시드니의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호주 달러 강세로 인해 많은 배낭여행객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하게 만들기도 함. 지난 한 해 동안 호주를 찾은 배낭여행객은 56만 6천명이었으며 이 중 76%는 뉴사우스웨일즈주를 방문하였고, 57%는 퀸즐랜드주, 45%는 빅토리아주를 방문하였음

(출처 :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2.1.19)

(<http://www.smh.com.au/travel/travel-news/trapped-in-sydney-backpackers-cant-afford-to-see-australia-20120117-1q4ck.html>)

(한국관광공사, 담당 : 김예슬 | 등록일 : 2012.01.31)